

고요히 머물며 욕심을 비우다

비움과 나눔은 상보적이다. 비워야 나눌 수 있고, 비워야 함께할 수 있다.

전주교광주대교구가 주최하고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비움나눔페스티벌은 이웃사랑과 나눔을 위한 축제다. 올해도 '비움나눔페스티벌'이 전주교광주대교구청 일원에서 열린다.

7회째를 맞은 비움나눔페스티벌이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전시, 공연, 콘서트, 버스킹, 성무극, 오케스트라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진다. (개막식 12일 오후 7시)

올해 주제는 'Be still-고요히 머물며'로 시편 37편 7절에 나오는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에서 차용했다.

고도화된 물질문명의 자본주의화에서 '고요히 머물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끊임없이 외부의 요인들은 인간의 내면을 흔들고 사유와 성찰을 방해한다. 고요히 머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비우고 욕심을 버려야 가능한 것이다.

개막에 앞서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전시는 국내외 26명 작가들의 조각, 조형, 설치, 회화 작품이 출품됐다.



이수진 작 '최후의 만찬'

전주교광주대교구 가톨릭평생교육원 12~20일 '비움나눔페스티벌' 전시·성무극·오케스트라 등 다채

소빈 예술감독은 "이번 페스티벌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브레디나(구 광주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해 본관 지하, 야외공간을 활용해 진행된다"며 "지하전시장과 야외전시장 각각 공간의 특징을 살려 주제와 의미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지하전시장에는 조형, 회화, 염색, 설치 작품 등이 관객을 맞는다. 뉴욕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현대 시각 예술가 리차드의 작품은 현대사회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드러낸다. 그는 잡지와 책을 '찢는' 행위를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조형화한다.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항거이자 정보의 잔해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행위로 수렴된다.

그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감춰진 현실에 주목하는 한편 잊혀진 역사 속에서 인간성의 흔적을 찾는다"며 "뉴스 매체의 이미지가 모자이크처럼 조각날 때 예술은 메시지를 발현한다"고 언급했다.

전통 수공예 종이를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재창조하는 린민 작가의 한지공예 천연염색도 눈길을 끈다. 작품에는 단순하면서도 투박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심미안이 투영돼 있다.

중국 작가 세민의 염색 및 섬유 작품을 통해서도 당대 복식의 미모자모를 가늠할 수 있다.

자연친화적인 염색으로 힐링이 되는 스토리를 선



비움나눔페스티벌이 12일부터 20일까지 전주교광주대교구청 일원에서 열린다. 야외 전시장 장면.



안선화 작 종이 정크 작품

사하는 김영남 작가의 예코작품, 종이 정크 작업을 매개로 자연의 순환을 표현한 안선화 작가의 설치 작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연소재인 보리줄기를 토대로 보리회화를 작업한 이수진 작가의 작품은 독특하다. 화려하면서도 깊이와 묵직한 주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고도의 집중력과 오랜 작업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를 수 없는 고아한 아름다움이 발길을 붙든다.

야외 전시장은 메시지와 조형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조각, 조형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양문기 작가의 '욕망의 무게'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환기하는 물질적 갈망과 욕망을 표현한다. 한편으로 들

의 무게만큼 무거운 삶의 무게를 상징하기도 한다. 목포 출신 양태백 작가의 '별이 빛나는 거룩한 밤'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모티브로 했다. 성

당의 벽면을 덮은 고흐의 작품은 이성적인 아우라를 발하며, '별이 빛나는 거룩한 밤'을 토대로 제작된 수십 개의 우산은 푸른 잔디밭을 이국적으로 수놓는다.

전시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비움콘서트와 나눔콘서트는 각각 12일, 18일 펼쳐질 예정이다. 12일에는 피아노도미니, 광주가톨릭 솔리스트양상봉, 피아노오케스트라가 가을밤을 은은하게 적시는 음악을 선사하며 18일은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를 통해 생생한 라이브 연주와 함께 아프리카 음악을 들려준다.

국악한마당 일환으로 성무극도 마련돼 있다. 19일 가톨릭국악인회 무용단과 연주단이 '낙화'라는 주제로 한국 최초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 이야기를 성무극으로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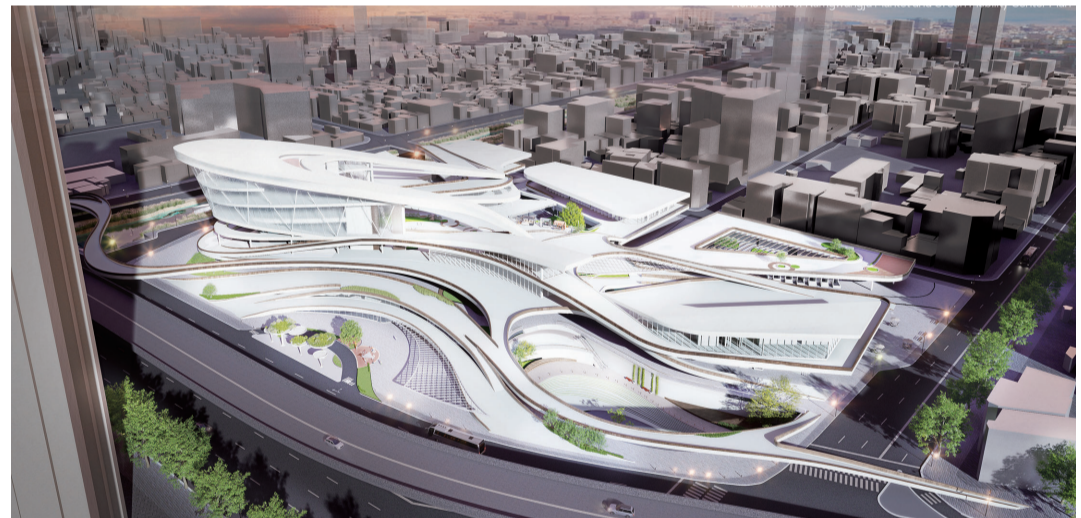
곽승호 작 '꽃소풍'

어린이그리기대회는 12일 'Be Still : 나만의 휴식, 편안한 우리, 기다림'을 주제로 열리며 수상작은 전시기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방글라데시 인권 평화 후원금을 위한 플라마켓을 비롯해 비움나눔 장터, 비움나눔 점빵, 바오로가게, 생명존중캠페인 등도 페스티벌 기간 진행된다.

전주교광주대교구 최윤복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장은 "고요히 머물며 라는 주제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주님과 이웃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했다"며 "이번 비움나눔페스티벌이 그 취지에 맞게 실현하는 문화페스티벌, 함께하는 문화페스티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반공모 대상 최지은 '녹색도시 정거장'

인간 생각하고 삶 담아낸 '인권+건축'

'광주-아시아 건축대전' 20일까지 최지은 '녹색도시 정거장' 대상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는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자연을 닮은, 자연을 품은 건축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늘날 건축은 인간의 가치와 의미까지 포괄한다. 인권과 건축은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삶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접점을 이룬다.

'인권+건축'을 주제로 한 건축대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유창균)와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이순미)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주-아시아 건축대전' (건축대전)이 열린다. 8일부터 2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정보문화원(B3).

유창균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은 "이번 건축대전은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인권과 건축이 어떤 의미에서 상통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건축대전에서는 대상을 포함해 입상작 12작품, 특선 28작품, 입선작 42작품을 선보인다.

국제공모전 전환 후 첫 대상은 최지은(조선대)의 'Green Urban Station'이 차지했다. 아이디어 공모 부문 대상은 박아인의 '카멜레온 놀이터'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아이디어공모전 대상 박아인 '카멜레온 놀이터'

전시는 크게 공모전 전시회와 기획전으로 진행되며 공모전은 국제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이 관객들을 맞는다. 기획전은 광주전남건축가회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건축과 도시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River+City'에서는 영산강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광주전남대학 연합프로젝트로 한 학기동안 워크숍으로 진행된 지역 대학(전남대와 광주대, 호남대) 학생들의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 작품을 만난다.

개막식과 시상식은 8일 열렸으며, 연계행사로 오는 19일 야마모토 리겐의 특별 강연회가 예정돼 있다.

이순미 광주전남건축가회장은 "이번 대전은 아시아 전역의 다양한 건축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며 "인권과 건축의 접점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설과 영화, 그 속에 스민 음악들

'소설, 시네마 음악회' 11일 계림동 문학서점

동구 계림동에 자리를 튼 문학서점(대표 정진웅·중앙로 307)은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문화예술 행사를 펼쳐 왔다. 시와 음악을 모티브 삼은 '노래가 된 시', 차와 음악이 어우러진 '다향목음' 등이 바로 그것.

올해도 소설·영화·음악이 결합된 작은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문학서점이 '소설, 시네마 음악회'를 오는 11일 오후 5시 문학서점에서 연다. 계림동 현책방거리 활성화를 위해 동구가 책마을 인문산책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한 행사다.

정진웅 대표는 "문화적 르네상스의 정수라 볼 수 있는 20세기 소설들은 다양한 영화로 변모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음악회는 소설을 기반으로 영화화된 작품을 속 노래를 감상하고 오늘날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먼저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들을 수 있다. 주옥같은 가사들과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는 박찬욱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삽입되면서 대중적 인기를 구가했다.

곽재용의 2003년작 '클래식'에 삽입된 '너에게 난 나에게 난'은 자전적 탄 풍경의 노래다. 작중 조인성과 손예진이 외투로 비를 피하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낭만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영화 '열기적인 그녀'에서 울려 퍼졌던 신승훈의 'I believe', 이범수 주연의 '조폭마누라'에 삽입된 '편지'도 레퍼토리에 있다. 저마다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 이 작품들은 2000년대 초반의 향수를 간직하고 있다. 이외 '윙달대표야심', '비와 당신', '편지', '마리아' 등이 올려 퍼진다.

광주중창축제 거리공연 및 프리마켓페스티벌, 달빛몽땅 공연 등을 선보여 온 '논다밴드'가 연주를



지난해 계림동 문학서점에서 '다향목음' 행사를 진행하는 장면. <문학서점 제공>

말한다. 이들 정진웅, 한종면, 정하나 삼인조는 지역방송 프로그램 등에 참여, 관객들과 소통해 왔다.

무료 행사.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인 물은 썩고 변화를 멈춘 인간은 도태된다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Pool' 공연 15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거움을 안고 흘러가는 무감각한 사회, 한없이 가벼운 것 속에 살아가는 무한정한 무거움, 끝엔 우리도 당신이다."

다분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캐치프레이즈는 공연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무용극 한 편이 관객을 찾아온다.

김성훈 댄스프로젝트가 기획공연 'Pool'을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작품은 현대 사회에서 규정된 틀에만 맞춰 살아가는 인류를 '죽은 상태'로 규정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처럼 변화를 멈춘 인간과 사회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신체 언어에 담았다.

무용수들은 물을 뿌리거나 허리를 꺾는 등 고감한 동작을 시연한다. 블랙코미디적인 요소와 신



김성훈 댄스프로젝트의 무용극 'Pool' 공연 장면.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제공>

체 본연의 몸짓을 섞어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안무 작업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에서 예술 역량을 펼쳐 온 김성훈이 맡았다. 대표작으로 'Flash', '조동', 'Mindseeker' 등이 있으며 이번 작품에는 고희준, 김수인, 배현우, 송승욱, 정상화 등 무용수가 함께한다.

2017년 창단한 김성훈 댄스프로젝트는 '인간 본연의 움직임을 무대화하는 창작 철학'을 바탕

으로 무대를 펼쳐 왔다. 다소 모호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들을 직설적인 방식으로 구현한다.

김성훈 안무가는 "우리 사회 속에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는 작품"이라며 "도태된 인간이 사회라는 '흐르는 강' 속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무용 형식을 통해 반문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석 1만원, 전당 누리집 예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